

2024 제1회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기념전

THE 1ST SEOUL  
YOOLIZZY CRAFT  
AWARD EXHIBITION

유리지

공예상

SEOUL M! SOUL

Seoul Museum of Craft Art

## 서울시 유리지공예상

서울시 유리지공예상은 2022년 7월, 유리지 작가(1945-2013)의 유족들이 서울시에 공예상 운영 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현대공예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교육자인 유리지는 평생 작품 제작에 몰두하며, 공예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차세대 공예인의 활동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공예상은 이러한 고인의 뜻을 기리고 한국 공예문화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국내외 미공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도자, 금속, 섬유, 목, 유리, 칠, 지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공예작가들의 작품 1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은 공예의 예술성, 동시대성, 창의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1차 심사를 통해 선정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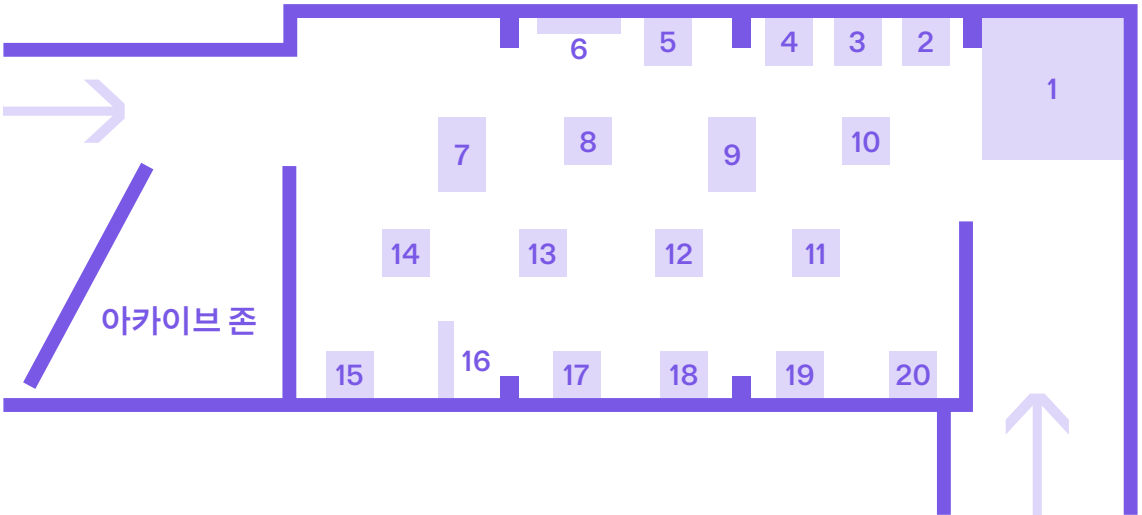
# The Seoul Yoolizzy Craft Award

The idea of Seoul Yoolizzy Craft Award began in July 2022, when the family of the late artist Yoolizzy (1945–2013)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donate funds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run the craft award. Yoolizzy, a renowned artist and educator representing the first generation of modern Korean craft, dedicated her life to creating works, making craft accessible to contemporary audiences, and supporting the next generation of craftspeople. This award was established to honor her legacy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Korean craft culture and industry.

The Seoul Museum of Craft Art accepted submissions of unpublished works created within the past three years from December 11 last year to January 15 this year. As a result, 157 works were submitted by craft artists actively working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eramics, metal, textiles, wood, glass, *ottchil*, and paper crafts. The works exhibited here are the 20 pieces selected by the first jury based on their artistry, contemporaneity, creativity, and practicality.

# 전시안내

## Exhibition Map



- 1 강석근 \* 수상자  
Kang Sukkeun \* Winner
- 2 한상덕  
Han Sang-deok
- 3 고희승  
Koh Heeseung
- 4 김은성  
Kim Eun Sung
- 5 이재익  
Lee Jaik
- 6 김수연  
Kim Su-yeon
- 7 유진경·장희방  
Yoo JinKyung·  
Chang Heebahng

- 8 조성호  
Cho Sungho
- 9 편예린  
Pyun Yaerin
- 10 길성식  
Gil Seongsik
- 11 이경노  
Lee Gyeong No
- 12 신혜정  
Shin Hye Jung
- 13 신선이  
Shin Sun Yi
- 14 김동인  
Kim Dong In

- 15 주현수  
Ju Hyun Su
- 16 정은진  
Jeong Eun Jin
- 17 박성훈  
Park Sung Hoon
- 18 이인화  
Lee Inhwa
- 19 이태훈  
Lee Taehoon
- 20 권인혜  
Kwon In Hye



지구의 언어 Language of the Earth  
 느티나무, 정제옻, 생옻, 황동, 동, 돌  
 Zelkova wood, refined ottchil,  
 raw ottchil, brass, copper, stone  
 48.5×21.5×40.5cm, 2023

두께가 3mm도 채 안 되는 얇은 칠기(漆器)로, 수분량이 다른 나무의 나이테가 건조될 때 수축률 차이로 서로 다르게 휘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함지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작가는 1년여의 기간을 두고 건조의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 가며 갈라지지 않는 단단한 기(器)를 만든다. 그리고 다양한 쓰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지의 내부에 옷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습기에 취약한 나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50도 내외의 가마에 함지를 수차례 넣고 빼기를 반복한다. 나무의 결을 드러내는 얇은 옷칠과 이것을 열로 경화하는 ‘옷칠 열경화 기법’은 작가가 자신만의 함지를 만들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산의 능선과 바다 혹은 태풍과 같은 자연에서부터 그것을 이루는 흙, 돌, 금속과 같은 물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관심사는 늘 ‘자연과 물질’로 귀결된다. 이러한 그의 감성은 흙, 동, 황동 등을 그릇 표면에 뿌려 층층이 바르는 마키에(蒔絵) 기법과 그릇 입 부분에 작은 돌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품 속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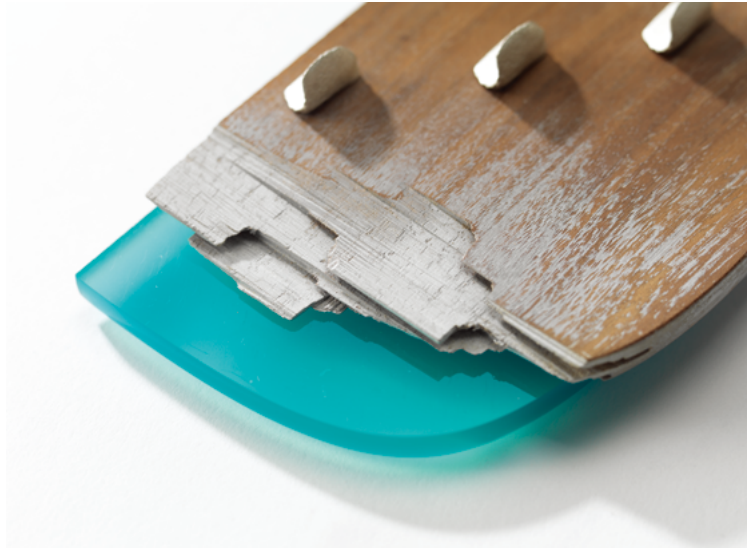
Kang Sukkeun's *Language of the Earth* is a ottchiled bowl less than 3mm thick. The basic shape of the bowl is created by carving and refining wood, revealing natural curves during the drying process. This process exploits the principle that different growth rings in the wood, which contain different levels of moisture, warp differently due to their respective shrinkage rates during drying. Over the course of about a year, the artist carefully adjusts the intensity and duration of the drying process to create a strong, crack-free vessel. The inside of the bowl is ottchiled to prepare it for various uses, and during this process, the artist repeatedly places the wood in a kiln at around 250 degrees Celsius to compensate for the wood's sensitivity to moisture. The thin layer of ottchil, which reveals the wood grain, and the heat-curing technique are unique methods developed by the artist. Kang's work consistently reflects his interest in 'nature and materials,' from mountain ridges and oceans to typhoons, and materials such as stones, and metals. This sensibility is expressed in his bowls through techniques such as sprinkling and layering ottchil with soil, copper, and brass, or adding small stones to the rim.



따라 그리기 Mirror Tracing  
황동, 나무 Brass, wood  
23×38×20cm, 2023

의인화된 새를 부조리한 상황 속에 연출하여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자기 작업의 시그니처와 같은 땀을 흘리는 새를 최소한의 건축구조와 함께 시각화하고 있다. 의인화된 새와 건축구조는 작품의 환상성을 배가하는 요소로, 그가 채택하고 있는 문법은 ‘익숙한 것의 낯섦’과 ‘내러티브의 전개’이다. 새의 몸뚱이에는 땀방울이 맺혀져 있다. 나무로 제작된 새는 정제된 마감으로 인해 본래의 질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필터를 한 겹 씌운 듯하다. 또한 새를 둘러싸고 있는 모호한 기하학적 구조들은 여러 공간들을 잘라 붙인 듯 낯설고 섬뜩하다. 이때의 금속은 판금 기법으로 제작하는데, 작가는 금속 표면을 질산동 용액으로 착색하여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붓질의 자국들을 지우고 있다. 이 역시 금속의 전형적인 색상과 광택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작품을 더욱 몽환적이게 하고 있다.

Han Sang-deok's *Mirror Tracing* expresses human anxiety by depicting an anthropomorphized bird in an absurd situation. The sweating bird, a signature element of his work, is accompanied by minimalist architectural structures. The two elements enhance the fantastical nature of the pieces. Han uses the principles of 'the unfamiliarity of the familiar' and 'the development of narrative' in his art. The anthropomorphized bird has drops of sweat on its body. The wooden bird, with its refined finish, does not directly reveal its original texture, but appears as if a filter has been applied. The ambiguous geometric shapes surrounding the bird seem like disjointed fragments of different spaces, creating a sense of unfamiliarity and eeriness. Here, the metal is crafted using the sheet metal technique. The artist then applies a copper nitrate solution to color the metal surface, effectively erasing the unconscious brush strokes. This process obscures the typical color and sheen of the metal, further enhancing the fantastical atmosphere of the artwork.



규칙적인 표시 A Regular Sign  
호두나무, 아크릴, 정은, 래커  
Walnut wood, acrylic, sterling silver, lacquer  
10.5×10×2.5cm, 2023

나무와 금속을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적이고 이질적인 재료와 결합하여 제작한 장신구이다. 작가는 나무 판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곳을 메우거나 원재료인 나무 판과 대비되는 다른 재료를 선택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별도의 꼼꼼한 시작(試作) 없이 바로 직관에 따라 제작에 임한다는 작가는 사실 생활 속에서 ‘관찰과 수집’을 끊임없이 병행하고 있다. 평소 작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간단한 메모나 드로잉을 하고 늘 재료를 수집하러 다니는데 이때 거리에서 접하는 도시의 풍경이나 이미지, 작은 흔적들 역시 지속적으로 촬영해 남긴다. 도시의 인상을 관찰하고 당장에 쓸모 있지는 않은 재료들을 수집하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결국 작가에게 작업의 동력으로 다가온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횡단보도를 모티프로 제작한 이 브로치 작품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오가는 규칙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닳아 지워지고 팬 도로의 흔적을 형상화한 것이다.

Koh Heeseung's *A Regular Sign* is a series of three pieces that combine wood, metal, and artificial materials such as plastic to create jewelry. The artist drills appropriately sized holes in wooden planks and fills them with contrasting materials. Koh works intuitively, without mock-ups, but persistently combines ‘observation and collection’ in everyday life. When inspired, Koh makes simple notes or drawings and collects materials as a hobby, capturing urban landscapes, images, and small traces from the street. This process of observation and collection drives the artist's work. Inspired by pedestrian crossings, *A Regular Sign* symbolizes the regular actions of people crossing the street and the resulting worn and eroded marks on the road.



아주 사적인 독백 2024 Narrative of My Life 2024  
백동, 적동, 황동 Cupronickel, red copper, brass  
6×3.6×6cm, 2024

‘무의미한 시간의 늪’에 빠진 인간의 군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형체가 없는 감정을 상징적, 시각적으로 풀어가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망에서 혹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읽고, 이를 습관처럼 메모나 일기에 남기고 있다. 〈아주 사적인 독백 2024〉는 작가의 사적인 기록물인 일기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매일 일기를 쓰는데 한 해가 끝날 때쯤이면 그해의 기록을 복기하면서 다음 해의 작업 주제를 정한다. 그래서 작가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무의미한 시간의 늪’은 자기 고백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두 개의 시계는 앤티크한 형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작은 시계는 멈춰버린 시간을, 1분에 한 번씩 움직이는 큰 시계와 그 시계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무의미한 시간의 늪에 빠진 작가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작가는 시침을 기형적으로 크게 하여 시간을 알 수 없게 했다.

*Narrative of My Life 2024* represents human features in the ‘swamp of meaningless time.’ Focusing on the symbolic expression of formless emotions, the artist habitually reads the emotions evoked from the depths of the mind and records them in notes or diaries. *Narrative of My Life 2024* started from the artist’s personal diary. She journals daily, and each year’s reflections lead to new themes for the following year’s work. The current focus on the ‘swamp of meaningless time’ is a self-confessional theme. Two similar antique clocks each symbolize different meanings. The smaller clock represents the stopped time, and a person buried under the larger clock, which moves once per minute, represents the artist herself trapped in meaningless time. The artist has oddly enlarged the hour hand to distort the perception of time.





트랜지션 9 Transition IX  
 동, 포슬린 컬러, 금박  
 Copper, porcelain color, gold leaf  
 55×59.3×55cm, 2024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금속 오브제이다. 2019년부터 <트랜지션> 시리즈를 제작 중인 작가는 달항아리, 매병, 주병 등 한국 전통 도기(陶器)를 모티프로 작업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주제는 생명의 ‘진화와 변이’이다. 달항아리의 자연스러운 비정형의 미감에서 작가는 앞에서 깨어나는 혹은 허물을 벗는 생명체를 상상한다. 제작과정 역시 이 같은 상상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데 2D와 3D를 넘나드는 형태의 변이, 종이에서 금속, 다시 도자로 이어지는 재료의 탈피가 그것이다. 작가는 컴퓨터 프로그램, 종이로 하는 시제(試製) 단계, 그리고 금속 작업의 본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3D로 옮겨 전체의 형태를 정하면 입체 항아리를 2D 프로그램으로 평평하게 피고 정렬한다. 그리고 긴 조각 모양대로 자른 금속은 용접 과정을 거치며 다시 입체로 복원된다. 이렇게 금속 기형이 완성되면 작가는 그 위에 포슬린 안료를 발라 가마에 구워낸다. 2D와 3D를 유연하게 오갈 뿐 아니라 금속이지만 금속 같지 않은, 재료를 규정할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작가는 가장 전위의 방식으로 형태와 재료를 실험하고 있다.

Lee Jaik's *Transition IX* is a metal object inspired by the Moon Jar. Since 2019, Lee has been creating the Transition series, drawing motifs from traditional Korean ceramics such as Moon Jars, Prunus Vases, and wine bottles. The underlying theme of his work is the 'evolution and mutation' of life. Inspired by the natural, asymmetrical beauty of the Moon Jar, Lee imagines life forms emerging from eggs or shedding their skins. The production process also embodies this concept of transformation, such as moving between 2D and 3D forms and changing materials from paper to metal and ceramics. Lee begins with mock-ups using computer programs and paper, then progresses to metalworking. Idea sketches are translated into 3D to determine the overall shape, which is then flattened and aligned using a 2D program. The metal, cut into long pieces, is welded back into a three-dimensional shape. Once the metal form is complete, Lee applies porcelain pigments and fires the piece in a kiln. By moving fluidly between 2D and 3D, and by creating works that defy the typical properties of metal, Lee experiments with form and material in an avant-garde way.



스툴의 숲: 어둠 05 Forest of the Stools: the Dark 05  
유리, 나무액자 Glass, wooden frame  
54.5×50×4cm, 2023

검은색 유리실(Glass Stringer)을 구부려 100여 개의 스톨 이미지를 숲처럼 모아 시각화한 작품이다. 2018년부터 의자 연작을 진행 중인 작가에게 있어 스톨은 잠시 앉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사물'이자 생각을 하는 그 자체의 상태로 정의된다. 작업을 위해 많은 드로잉을 한다는 작가는 어느 순간 유리 자체를 드로잉 도구로 활용해 보자는 생각으로 '유리실 드로잉'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리실에 열을 가하여 구부려 가며 30~40개의 스톨 모양을 만들고 이를 유리판 위에 올려 배치한 후 파우더를 쌓는다. 그리고 가마에 넣어 이를 굽는데, 이와 같이 유리판에 스톨을 배치하고 파우더를 뿌려 소성하는 과정을 서너 차례 거친다. 이때 작가가 사용하는 유리실은 0.5mm의 얇은 굵기로 섬세한 성형을 위해 온도가 낮은 알코올 램프나 손 토치를 이용한다. 가마 소성 후 유리실과 파우더의 입자가 바뀌기도 하는데 작가는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의 소성과 파우더 올리기를 반복한다.

*Forest of the Stools: the Dark 05* visualizes over 100 stool images, bent from black glass stringers and gathered together like a forest. For the artist, who has been working on a series of stools since 2018, stools represent 'objects that offer time' to sit and think, and the state of thinking in its own sense. Using glass stringers as a drawing tool, the artist creates 30-40 stool shapes, places them on a glass plate, covers them with powder, and fires them several times in a kiln. The artist uses thin 0.5mm glass stringers, forming delicate shapes with a low-temperature alcohol lamp or hand torch. After kiln firing, the texture of the glass stringers and powder changes, and the artist repeats the process until the desired effect is achieved.



별 헤는 밤 A Night of Counting Stars  
 참죽, 오동나무, 흑단, 동판에 주석도금, 백동  
 Toona sinensis, paulownia wood, ebony,  
 copper-plated tin, cupronickel  
 103.5×51×24.6cm, 2021

조선시대의 문갑형 약장을 현대 생활공간에 적합한 수납장으로 재해석해 제작한 작품이다. 2017년 국립무형유산원 레지던시에서 각각 소목장과 조각장으로 만난 작가들은 우리 '전통 가구에 현대적 미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근대 이전 시기 시대적·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주체적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여성들의 삶을 가구로 담는 연작을 작업하던 유진경 작가가 조선 의녀의 현실을 생각하며 약장을 구상하다 장식(裝錫) 제작을 장희방 작가에게 요청하면서 더욱 긴밀히 협업하게 되었다. 서랍의 일부를 없앤 약장은 특유의 수납 기능을 살리면서도 사방이 트여 시원한 미감을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전통 소목 작업에 주석 도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회화적인 이미지의 가구를 제작한 점이다. 주석 도금은 원래 금속공예에서 동(銅) 표면의 부식이나 변색을 막기 위해 내식성이 강한 주석을 그 위에 입히는 도금 기술이다. 작가들은 이러한 기법을 목가구에 적용하여 수목화의 속도감 있고 유연한 붓질과 같은 효과를 내 밤하늘의 은하수를 표현하였다.

*A Night of Counting Stars* reinterprets a traditional Joseon Dynasty-style medicine chest into a modern storage unit. When the artists met as masters of woodworking and carving a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Residency in 2017, they shared the idea of 'infusing traditional furniture with modern aesthetics.' The collaboration deepened when Yoo JinKyung, inspired by Joseon *Uinyeo* (medicine women), designed the medicine chest and asked Chang Heebahng to do the metalwork. By removing some drawers, the piece retains its storage function while offering an open and refreshing aesthetic. Traditional woodworking combined with tinning techniques—a technique often used to prevent decay or discoloration by covering copper with resistant tin—gives the furniture a painterly quality reminiscent of wash-ink brush strokes, evoking the image of the Milky Way in a night sky.

시간의 적층 Stacking of Time  
 정은 Sterling silver  
 27.5×46×14cm, 2023



지구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들에 남아있는 다양한 흔적들을 채집하여 이를 다시 금속으로 치환한 오브제이다. 작가는 25억 년의 역사를 가진 한반도 최고령 암석부터 서대문 형무소 담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시간과 삶의 흔적들을 소프트왁스로 탁본한 다음 이를 다시 정밀탈납주조로 금속에 옮겨 시각화하였다. 탁본과 정밀탈납주조법의 결합은 작가가 장소의 ‘흔적 채집과 읽기’를 위해 고안한 방식이다. 표면의 채집은 소프트왁스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오직 손의 체온으로만 가능하다. 작가는 이 작품을 위해 고창의 고인돌에서 경주 남산의 석벽, 수원 화성의 장안문 등을 다니며 직접 자신의 손길로 그곳의 흔적을 담았다. 그래서 작품에 새겨진 요철과 질감은 역사적 편린이기도 하지만 작업할 당시의 비, 바람, 햇볕에 대한 작가 자신의 기억 또한 더해진 것이다. 오감으로 작품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현상적 체험을 제안한다. 작품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자극 외에 인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물리적 자극, 즉 촉각에 배어있는 느낌과 상징성, 뉘앙스를 관람자에게 전하고 있다.

Cho Sungho's *Stacking of Time* is an artwork created by visiting specific sites and making rubbings of various traces found there, which are then layered and constructed. The artist collects surface impressions from historically significant sites in Korea, ranging from the oldest rocks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alls of Seodaemun Prison. These surfaces are captured using soft wax rubbings, which are then meticulously cast in metal using precision lost-wax casting, a method developed by Cho to 'collect and read traces' of a place. The collecting process involves melting the soft wax with the warmth of the hand. For this work, the artist personally captured traces with his own hands by visiting various historical sites, including the dolmens in Gochang, the stone walls of Namsan in Gyeongju, and Janganmun Gate of Hwaseong Fortress in Suwon. The textures and reliefs in the artwork represent historical fragments, but also incorporate the artist's memories of the weather conditions—rain, wind, and sunlight—experienced during the creation process. Hoping that people will experience the artwork with all their senses, Cho proposes a phenomenological experience through his work. The artwork communicates not only visual stimulation but also physical sensation, and deeper tactile feelings, symbolisms, and nuances to the audience.



자연의 몽상 Daydream  
 도자, 석기토, 안료  
 Porcelain, stoneware clay, pigments  
 16×14×15, 29×24×14, 29×14×24cm, 2022

침식과 풍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돌의 형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가 주목하는 돌은 자연의 침식, 압축, 응고, 풍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기억과 신화 혹은 역사의 기록보관소와 같은 속성의 것이다. 작가는 돌이 품은 이러한 기록들에서 힘과 깊이는 물론 무한한 상상력을 발견한다. 작가가 다양한 표정의 돌을 재현하는 데 고심하는 이유이다. 작가는 습관적으로 주변의 돌을 보고 다니는데 작업할 돌을 발견하면 석고로 떠내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석고틀에 점토를 눌러 붙이면 돌의 질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돌에 이끼나 꽃 등이 붙어 있다면 적정 농도의 흙물을 이끼나 꽃 혹은 돌의 부식물에 바른다. 흙물이 묻은 이끼와 꽃 등은 초벌과 재벌을 거치면서 원래의 것은 불타 없어지고 대신 같은 모양의 견고하고 섬세한 도자만이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자신이 작업하는 계절과 풍경 등에 기반한 감성으로 도자 표면에 색과 질감을 입힌다. 이렇게 작가는 시간과 자연 그리고 일상 속 소재를 ‘도자로 번안’하고 있다.

Pyun Yaerin's *Daydream* is a ceramic work that captures the shapes of stones marked by natural erosion and weathering. The stones the artist focuses on bear the marks of erosion, compression, solidification, and weathering, and serve as repositories of memory, mythology, and historical records. Pyun finds strength, depth, and boundless imagination in these records embedded in stone, which is why she meticulously recreates stones with different expressions. The artist habitually observes the stones around her and begins her process by making plaster molds of selected stones. By pressing clay into these molds, she is able to reproduce the exact texture of the stones. If the stone has moss or flowers, she applies slip to these elements. During the bisque firing and subsequent glaze firing, the original moss and flowers burn away, leaving behind durable and delicate ceramic forms. Finally, she adds color and texture to the ceramic surfaces, inspired by the emotions of the season and landscape in which she is working. Pyun continues to reinterpret materials close to us in our daily lives—time, nature, and everyday objects—through her ceramic art.



사물 Object  
유리 Glass  
47×36×47cm, 2024

블로잉(Blowing)과 연마(Coldworking)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작업에 있어 우선시 하는 가치로 ‘형태와 빛’의 조화를 말한다. 형태는 사물의 구조로 공간에 놓이는 방식을 결정하고, 빛은 형태 안에 들어와 시각적인 품격과 감성을 부여한다고 보는 작가는 유리야말로 형태와 빛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매체라고 본다. 작가는 달구어진 유리를 블로잉하여 최대한 크고 둥글게 형태를 잡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색감의 유리를 결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리가 식으면 양감이 풍만한 곡면에 직선의 격자를 새겨 넣음으로써 곡선과 직선이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이렇게 제작한 작품의 표면 일부를 연마한다. 이때 연마된 부분은 뿌옇고 바랜 질감으로 빛을 투영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치 연마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연마된 부분으로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화적인 인상을 남긴다.

Gil Seongsik's *Object* is a glass artwork created using blowing and cold working techniques. The artist prioritizes the harmony of 'form and light' in his work. Believing that form determines an object's spatial placement and light imparts visual elegance and emotion, Gil finds glass the ideal medium for experimenting with these elements. The artist shapes heated glass by blowing it as large and round as possible, sometimes combining glasses of different colors. When the glass cools, Gil engraves a grid of straight lines on the curved surface, creating a contrast between curves and straight lines. Finally, the artist polishes parts of the piece, giving the polished areas a cloudy, faded texture that does not reflect light. This result in a painterly effect that makes it appear as if light is entering the piece from left to right.



백동 수복강녕 박쥐 앞닫이 Nickel Box  
 백동 Cupronickel  
 55.1×17×17cm, 2024

나무로 제작되던 조선시대 반닫이(앞닫이) 전체를 백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은과 유사한 빛깔을 가진 백동은 무르면서도 잘 부식되지 않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생활 기물 제작에 많이 쓰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다루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흔치 않은 재료가 되었다.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입사장(入絲匠)> 보유자인 최교준 문하에서 18년간 작업한 작가는 오늘날 보기 드물게 백동을 포함한 금속 기물 제작부터 은입사 등 장식 작업까지 금속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혼자 수행할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와 장식의 위치, 장식 문양 등은 전통 목가구 제작 문법과 상징 체계를 존중하여 제작되었으나 가구의 주재료를 나무에서 백동으로 치환함으로써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Lee Gyeong No's *Nickel Box* is a metallic version of *bandaji* (front-door cabinets), which is traditionally made of wood. The main material, cupronickel, is known for its subtle luster and has been widely used in the production of household item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but has become rare in modern times due to its difficulty in handling. Lee worked for 18 years under Choi Gyojun, a Seou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ster in the metal inlay. He is a master craftsman, skilled in all processes from the production of metal objects to cupronickel and silver inlay work. While the overall shape and placement of the hardware follow the traditional style of wooden furniture, the piece modernizes these traditional techniques and aesthetics.



숨겨진 이면 11 Hidden Side 11  
 정은 Sterling silver  
 11×26×4cm, 2023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식물의 공통적인 특질을 시각화한 장신구이다. 작가는 오랜 기간 동안 식물의 형태와 질감, 색깔 등을 수집, 관찰하고 스케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형태 안에 숨겨진 수학적 질서와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작가에게 ‘보편성과 이면성’이라는 작업의 화두로 다가왔다. 그의 작품이 식물의 보편적인 형상을 쫓는 듯하지만, 핀 장식 혹은 고리가 있어야 할 장신구의 뒷면에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형상을 숨겨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식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정은 (Sterling Silver) 판을 망치질로 성형한 후 플래니싱 망치로 표면마감(Hammer Planishing) 하였으며 뒷면에는 식물이 가진 수술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볼을 땀하여 구조를 잡았다. 앞뒤를 달리하는 그의 작품은 착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만남의 즐거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을 좌대에 올려놓았을 때 오브제로서도 손색이 없어 장신구와 오브제의 경계를 허문다.

Shin Hye Jung's *Hidden Side 11* is a jewelry that visualiz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lants observed in nature. Over time, the artist has collected, observed, and sketched the shapes, textures, and colors of plants, revealing the mathematical order and structural mechanisms hidden in their organic forms. This led to the central theme of her work: 'universality and hidden side.' This is why, although her work seems to follow the universal forms of plants, it hides unexpected additional forms on the back of the jewelry piece where pin decorations or hooks should be. To express the organic forms of plants, Shin hammers sterling silver sheets and finishes the surface with a hammer planishing technique. On the back, she has soldered small spheres to represent plant stamens. The different fronts and backs of her piece offer the wearer with the pleasure of unexpected encounters. Placed on a stand, the piece functions as object d'art,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jewelry and art object.





피어나다 Blooming  
 손은, 철, 옷칠 Fine silver, steel, ottchil  
 36×21×36cm, 2024

전통적으로 화로나 촛대를 장식하던 입사기법 중에서도 거스름을 내어 금속선으로 문양을 넣는 짚음 입사로 제작한 그릇이다. 꽃이 피고 지고 씨앗을 맺는 순환 속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작가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꽃이지만 그 속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꽃의 양면성에 주목했다. 작품은 기물 제작 후 그 표면에 입사하고 다시 옷칠로 마무리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치고, 각 공정마다 특별한 재료와 기법을 더해 완성되었다. 작가는 철 그릇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겉면과 안쪽면의 곡률을 다르게 하여 형태를 잡았다. 그리고 송진과 황토를 끓여 만든 감탕을 채워 기물의 철판을 고정하는데 이때 가로, 세로, 대각선 양방향으로 총 네 번의 짚음질로 거스름을 내어 입사할 바탕이 되는 기물을 완성한다. 은선은 0.25cm와 0.3cm로 뽑아내 준비하고 은구슬은 0.3cm, 0.5cm, 0.7cm 크기로 만드는데 이들은 모두 꽃의 인맥과 꽃씨 표현을 위한 입사의 재료이다. 은선과 은구슬로 안과 밖을 입사한 후 아교와 송진을 섞은 접착체인 감탕을 기물에서 빼내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기물의 산화를 막기 위해 생옷칠을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은입사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Blooming* is a piece made using the *jjoeum-ipsa* technique, a traditional method of decorating stoves or candlesticks with metal inlays, specifically by creating rough surfaces for the insertion of metal lines. Searching for the ‘source of life’ in the cycle of blossoming, fading and seed formation, the artist focused on the duality of flowers: their external beauty and their internal struggle to bear fruit. The work is completed through a meticulous process of crafting the base, inlaying and finishing with *ottchil*, incorporating special materials and techniques at each stage. The artist divided the iron object into five parts, each with different curvatures on the outer and inner surfaces. A mixture of resin and loess is boiled to create *Gamtang* (a gluey paste) that holds the iron plates together. The base object is prepared for inlay by scoring it in four directions — horizontally, vertically and diagonally — using the *jjoeum* technique. Fine silver wires of 0.25 cm and 0.3 cm thickness are drawn, and silver beads of 0.3 cm, 0.5 cm and 0.7 cm are made to represent the veins and seeds of the flower. After inlaying the inside and outside with silver wires and beads, the sticky paste is removed. Finally, a coat of raw *ottchil* is applied to prevent oxidation of the iron, which resultingly enhances the visibility of the silver inlay.

결함(缺陷)으로 여겨져 지워지는 자국을 작업의 정체성으로 삼은 작품이다. 슬립 캐스팅(Slip Casting) 과정에서 생기는 석고틀의 분할선과 불규칙한 구연부의 슬립 자국은 도자가 완성될 때 다듬어 없어지기 마련이다. 틀 자국을 지우는 것을 '페틀링(Fettling)'이라 하는데 작가는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도자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고안된 주형의 분할이 기능을 넘어 장식으로 그리고 작업의 주요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이로써 슬립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불규칙한 질감의 분할선은 굽는 번조 과정을 통해 기물에 영구히 남게 되었다. 이렇듯 작가는 쓸모없는 것, 일반적인 제작 과정에서 없어져야 하는 결함들에서 쓸모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꽃봉오리 모양의 화병인 이 작품의 제목은 <결함>이다. 결함은 부족하거나 모나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일컫지만 작가는 이를 '맺을 곁'에 '꽃봉오리 함'자로 명명하며 쓸모없는 '결함'도 꽃봉오리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結瘡(맺을 곁, 꽃봉오리 함) - 2403V FLAWER 2403V  
 도자 Porcelain  
 24×40×13cm, 2024

*FLAWER 2403V* embraces discarded marks as its identity, challenging the norms of traditional fettling. The artist intentionally preserves the seams of plaster molds and the slip marks of slip casting, which are usually cut away in the ceramic finishing process. By eliminating the fettling process, the practical divisions of the molds are transformed into decorative elements and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iece. The irregular seams created during slip casting remain permanently on the object after firing. The artist finds and gives meaning to 'defects' that are typically eliminated. By titling the piece *FLAWER*, a Korean term of the same name that means seemingly useless 'defects,' the artist suggests that it can have value, like a flower b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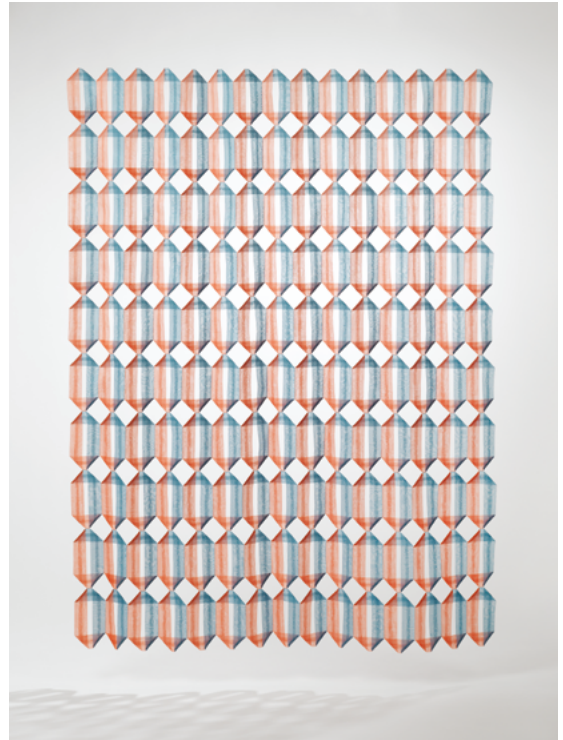


미래에 대해 The Present+ Series  
슈퍼화이트 슬립 Superwhite slip  
33.5×42×28cm, 2023

‘인간이 기성품이 된 미래’를 상상하며 작업한 작품이다. 복제 양 돌리를 보면서 언젠가는 인간까지 복제되지 않을까 상상한 작가는 생김새나 인종 등 개별적인 외관이 아니라 신체에 있어 가장 공통된 구조인 뼈를 소재로 인간 복제에 대한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하였다. 작가 자신과 같은 신장의 해부학 실습용 모형뼈를 공수해 석고로 틀을 잡아 슬립 캐스팅으로 뼈를 뜬 후 척추, 골반, 다리 등을 접합해 형상화하였다. 완전한 백색에 가까운 소재인 슈퍼화이트(Superwhite)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마감해 실제 뼈와 같은 질감을 더했다. 작가는 흙에 불을 데어 무언가 만드는 가마 소성과 사람이 죽었을 때 불에 태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두 과정을 비교하면서, 화장의 마지막에 뿔가루가 남는다면 도자는 흙가루에서 시작하는 창조의 과정임을 깨달았다 한다.

*The Present+ Series* imagines a future in which ‘humans become readymade products.’ Inspired by the cloned sheep Dolly, the artist wondered if humans might eventually be cloned. Instead of the different colors and shapes of the human features, he expressed his imaginary thoughts about cloning by using bones, which he believed to be the most essential and common element of the human body. Using anatomical model bones of the same height as the artist, molds were made and slip-cast to form the spine, pelvis, and leg bones, which were then assembled into the body forms. Made from Superwhite clay, a near pure white, and left unglazed for a realistic bone texture, the piece reflects the artist’s contemplation on the parallels between kiln firing in pottery and cremation in humans. The artist realized that while cremation leaves behind bone ash, pottery begins the creative process from clay powder.

다각형의 접는 발 Polygon Folding Curtains  
 노방, 견사 Organza, silk thread  
 100×130×7cm, 2023



노방천으로 다각형의 개체들을 만들어 다시 이어 붙인 작품으로 벽이나 공간에 펼쳐 걸거나, 보관할 때는 부채의 합죽선과 같이 접을 수 있게 제작되었다. 연속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조형의 화두로 삼고 있는 작가는 최근 평면인 섬유에 입체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각형의 접는 발>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행해지는 딱지 접기에서 착안하였다. 작가는 앞뒤로 교차시키는 딱지의 여밈 방식에서 일정한 패턴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감지하였다. 또한 얇고 가벼운 노방은 투명한 속성으로 인해 천의 중첩에 따른 색감의 변화를 보인다. 작가는 천의 여밈에 의해 생겨나는 일정한 패턴의 유닛들을 투각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었고 노방의 시접선이 겹칠 때 색감이 변하는 점 역시 작품에 담았다. 작가는 한복, 기와 등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점, 선, 면 등의 조형 요소로 분석한 뒤 이를 구조적 변형의 모티프로 삼아 작업하고 있다.

*Polygon Folding Curtains* is a piece made by connecting polygonal units of organza, designed to be hung on walls or in rooms, folding into the shape of a traditional fan when stored. The artist who explores 'continuity, transparency, and material properties' as the keys to her craft, has recently been working on giving three-dimensionality to flat textiles. *Polygon Folding Curtains* was inspired by the everyday practice of folding paper. The artist noticed the potential for creating continuous and regular patterns through intersecting folds. The thin and light organza, with its transparent properties, shows different colors through the overlapping of the fabric. The artist presented a unit of regular patterns created by folding the fabric in an openwork method, and also emphasized the changing colors when the transparent organza seams are overlapped. Inspired by Korean cultural heritage such as roof tiles and *hanbok*, the artist analyzes them into visual elements such as dots, lines, and planes, and then uses them as motifs for structural transformation.

유리에 숨을 불어넣어 작업하는 블로잉(Blowing)으로 형태를 만들고, 갈고 깎아내는 콜드워킹(Coldworking)으로 표면을 장식한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의 유리 작업의 목적을 '에너지의 생성과 빛의 산란'이라 일컫는다. 공예 작업을 다루는 재료와 작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대화로 본다는 작가는 자연의 풍경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등과 같이 작업의 주제가 외부에서 오기도 하겠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부로부터 발로된다고 말한다. 뜨거운 유리를 파이프로 말아 올려 숨을 불어넣으면 유리의 내부는 팽창해 가며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시작된 작업은 작가가 원하는 형태를 얻을 때까지 한숨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콜드워킹 기법으로 표면을 연마하여 깎아내는데 이때 불투명해진 유리를 다이아몬드 패드를 이용하여 광이 날 때까지 갈아낸다. 이로써 작가는 유리 내부에 빛이 감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에너지를 응축시키는가 하면 유리의 외부를 깎아 빛을 산란하기도 하는 이중의 작업을 한다.



VOID\_#17  
유리 Glass  
48×50×48cm, 2023

Park Sung Hoon's VOID\_#17 is a glass artwork formed by blowing and decorated with surface details by cold working. The artist describes the purpose of his glass work as 'creating energy and diffusing light.' Viewing the craft as a form of dialogue between the material and the craftsman, the artist notes that while the art themes may be inspired by external sources such as natural landscapes or social issues, for him, they emerge entirely from within. When hot glass is wound onto a pipe and breath is blown into it, the glass expands internally, creating space. This process continues without interruption until the desired shape is achieved. The artist then uses the cold working technique to grind and polish the surface, using diamond pads to achieve a luster on the now opaque glass. Through this dual process, the artist creates spaces within the glass where light can circulate, thereby condensing energy, and carves the exterior to scatter light.

백자 안에 생명과 시간의 시작점이 되는 빛을 담아내고자 하는 작가의 오랜 작업의 화두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광주 분원에 백자토를 공급하던 양구에서 10년 넘게 백자를 연구하고 있는 작가는 성형된 기물에서 표면을 최대한 얇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백자의 투광성을 높이고 있다. 건조된 기물을 물레에 올려 물로 살짝 불리고 초경합금 굽칼로 기물의 표면을 2mm 이내로 종잇장과 같이 얇게 깎아낸다. 그리고 안쪽에 유약을 발라 초벌 하는데 이는 기벽이 어느 정도 단단해야 도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안 작업을 마치면 1280도의 가마에서 구워내는데 소성 후 유약을 바르지 않은 부분은 다시 다이아몬드로 연마하여 마감한다. 기물의 입 부분 곡선은 조선시대 백자 발(鉢), 기형 안을 지나는 단조로운 수직, 수평은 우리 조각보의 미감을 따랐다. 양구의 자연 속에서 빛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백자에 접목하고 있는 작가는 ‘백자를 투과하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작업의 목표라고 말한다.



물질허상\_감정의 기억  
Material Illusion\_Memory of Emotion  
백자 White porcelain  
34.5×32.5×30.8cm, 2023

*Material Illusion\_Memory of Emotion* embodies the artist's long-standing theme of encapsulating light in white porcelain, underpinned by the belief that life and time begin with light. Having studied white porcelain in Yanggu for over a decade, the artist enhances the translucency by meticulously thinning the porcelain clay through the technique of cutting. Using a lathe, the artist shaves the dried vessel to a paper-thin 2mm with cemented carbide carving knives, then applies glaze to the interior before bisque firing to ensure the vessel's surface is robust enough for design work. After firing at 1280 degrees Celsius, the unglazed parts are polished with diamonds. The curvilinear shape was inspired by Joseon Dynasty White Porcelain Bowls an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atterns on the vessel were inspired by traditional patchwork aesthetics. Seeking the essence of light in the nature of Yanggu and applying it to her white porcelain, Lee claims that the aim of her work is to reveal 'various modes of light that pass through the porcelain.'



해질녘의 민들레 홀씨 Sunset Dandelion Seeds  
유리 Glass  
45.5×40×45.5cm, 2024

해 질 녘 작업실 마당에서 우연히 보게 된 민들레 꽃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씨앗들이 모여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점이 흥미로웠고 바람에 흩날려 예상치 못한 어딘가로 날아가 피어난다는 점에서 작가는 자신의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했다. 평소 색유리 덩어리에서 가는 유리 선을 만들고 그것을 모아 패턴을 지닌 유리실(Filigree Glass)을 작업하던 작가는 민들레 홀씨의 섬세하고 가는 선들과 이것들이 이루어 내는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각기 필리그리 케인(Filigree Cane)과 블로잉(Blowing)을 연결하였다. 필리그리 케인에 열을 가하여 불면 유리가 중심축에서 넓게 퍼져나가는데 이때 유리실 안에 숨겨진 패턴들이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줄기대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붙은 민들레 홀씨를 연상케 한다. '잔잔함 속에 화려한 미감'을 품은 기물을 작업하는 작가는 항상 이 같은 작업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 등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작가는 좀 더 현대적인 재료인 유리만의 물성과 기법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The inspiration for *Sunset Dandelion Seeds* came from observing dandelion seeds in the yard at sunset. The artist found that the way small seeds gather together and disperse in the wind, perhaps landing and blooming somewhere unexpected, was reminiscent of his own journey. Normally working with thin glass lines to create filigree glass patterns, the artist combined filigree Cane and blowing techniques to replicate the delicate lines and shapes of dandelion seeds. When heated and blown, the filigree Cane spreads from the center, revealing hidden patterns within the glass. It is reminiscent of dandelion seeds clustered around a branch. Seeking to represent artifacts with a 'serene yet ornate aesthetic,' the artist continues to find the subject and medium for his work. Stating that he gets the same aesthetic from the Joseon Dynasty Moon Jars and White Porcelain, Lee focuses on expressing the unique properties and techniques of glass which is a more modern material.

요람의 숨결 The Breath of a Cradle  
정은 Sterling silver  
15×27.5×15cm, 2023

곰팡이와 같은 작은 생명체들의 군집과 그 생명력을 유기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우연한 기회에 현미경으로 확대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면서 미세세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특이한 모양으로 진화된 미생물들의 촉수나 다리, 발의 움직임은 작가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80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은(銀) 선이 열풍림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후 작가는 미생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은 선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작가는 은선을 하나씩 집게로 구부리고 꼬고 자르고 땀질하며 이어 붙이는 작업을 반복한다. 미세하고 섬세한 곰팡이들이 모여 군집을 이루듯이 중심부터 시작된 선들은 반복과 중첩의 과정을 거듭하며 유기적이고 단단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어느 정도 단단하게 군집을 이루게 되면 작가는 나무망치로 전체 형상을 다듬는데 이때 길게 꼬았던 은 선들을 다시 연결하거나 중간중간 은구슬을 부착하기도 한다. 작가는 미생물의 본능적인 움직임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방식도 되짚어 보기를 희망한다.



*The Breath of a Cradle* expresses the 'colony and vitality' of microorganisms such as mold in an organic form. The artist began exploring the microscopic world after encountering an enlarged view of the coronavirus through a microscope. The tentacle-like or leg movements of microorganisms evolved into unique shapes that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artist because they resembled the movement of silver lines when annealed at over 800 degrees Celsius. Subsequently, the artist began to depict the forms and movements of microorganisms using metal lines. She bends and twists hundreds of silver lines with tweezers, cutting and soldering them together. The lines, starting from the center, repeatedly overlap to form an organic and solid shape, much like fine, thin clusters of mold. Once the lines form a certain degree of solid mass, the artist refines the overall shape with a wooden hammer, sometimes connecting the long, twisted silver lines or adding silver beads. By visualizing the instinctive movements of microorganisms, the artist hopes to reflect on the basic methods of human survival.